

니-체와 現代 文化

-그들의 生日을 記念하야-㉘

金亨俊

그가 살아 온 歷史의 重壓을 늦기면서도 人間은 過去의 記憶에 依한 連鎖 가운데서 自己의 同一性을 確認하며, 自己의 行爲의 根據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人間이 만일 歷史에만 存在한다면 그는 歷史的 知識의 過剩 때문에 窒息할 것이다. 니-체는 歷史的 知識만을 가진 當時의 學者들을 『教養 있는 俗人』이라 하야 嘲笑했다. 우리가 歷史적으로만 늦긴다면 우리는 現在 보담도 항상 過去에 드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歷史的 重壓으로 버서 나지 안코는 人間은 새로운 發展을 바랄 수 업는 것이다. 『歷史적인 것과 非歷史적인 것은 個人 또는 民族 人類의 健康을 爲하야 極히 必要하다』 그러므로 人間은 또한 『非歷史적으로 늦기는 能力』을 가지지 안흐면 안된다. 여기서 人間은 忘却의 動物 즉 歷史적인 同時에 非歷史적인 動物인 것이다. 人間은 記憶에 依 하야 過去를 가지면서도 忘却能力을 通하야 過去 및 現在를 評價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人間은 『本來 價値評價의 動物』인 것이다.

이러한 人間觀의 우에서 그는 自己의 理想하는 偉大한 人間을 自由思想家 즉, 歷史的 重壓을 늦기면서도 모든 事物은 科學적으로 評價할 수 잇는 明朗한 思想家에서 求한 것이다. 自由思想家是 從來의 慣習이나 權威에 連然하며 從來의 價値評價의 規準에 억매여서는 안된다. 어대까지나 自由스러운 立場에서 現實을 實情 그대로 認識하여 評價하지 안흐면 안된다. 그는 이러한 個人的 口高의 立場에서 宗教, 道德 一切 文化現像을 거침업시 批判하며, 否定하며 改造하러 한것이다. 그러나 自由思想家도 實際에 잇서는 藝術的 天才와 가티 偉大한 人間이 못된다는 것을 그는 또한 自覺하게 되였다. 自由思想家是 現實을 科學적으로 認識하러 한다. 그러나 純粹하게 또는 自由로서 認識키 위하야는 自己의 感情과 意志를 抑壓하지 안흐면 안된다. 그러나 우리가 感情과 意志를 抑壓하고서 果然 偉大한 生을 차즐 수 잇슬가? 勿論 意志와 感情을 除外하는 限에서 우리는 生의 肯定을 어들 수 잇슬 것이다. 그러

나 이러케 肯定된 生이 반드시 偉大한 生은 아닐 것이다. 차라리 感情과 意志가 한 대 어울려진 人間만이 生을 積極的으로 肯定하는 創造的 人間일 것이다. 여기서 그는 다시 第三期의 『超人』 思想으로 轉向하게 된 것이다.

니-체가 처음부터 理想하는바, 偉大한 人間은 生을 積極的으로 肯定하며 創造하는 디오니소스의인 것이다. 그러나 藝術的 天才도 自由思想家도 거기에 適當치 못했다. 여기서 最後로 發見한 것이 『超人』 이었다. 超人也 最初의 悲劇的 人間과 가티 디오니소스의 象徴이다. 그러나 超人是 悲劇的 人間과 가티 아포로의 假象世界에 逃避함으로서 虛僞的인 生을 肯定하려는 것이 아니고 一切의 價値를 變摸시키며, 人間을 스스로 超克함으로서 偉大한 生을 積極的으로 肯定하려는 것이다. 『人間은 超克할 어떤 것이다.』 猿類로 부터 人間에 나온 것과 가티 人間으로부터 超人에 나가지 안하면 안된다. 超人の 눈으로 본 人間은 人間の 눈에 빗치운 猿類와 가튼 것이다. 우리들의 肉體는 어찌하면 人間을 保守하느냐? 가 아니라 어찌하면 人間을 超克하느냐? 이다. 小人的인 女性的인 奴隸的인 單劣한 人間 現實을 超克하는 것만이 偉大한 生을 肯定케 하는 것이며, 創造하는 所爲이다. 『創造的인 人間만이 人間에게 目標를 주며 그들에게 未來를 呈示한다. 創造的 人間만이 처음으로 조커나, 나쁘거나 創造를 爲하는것이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짜라투스트라]의 입을 빌어 이러한 『超人』 을 說教한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人間 즉, 俗家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바 高貴한 人間에게 가르키는 것이다.